

"부활이 없다면"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고린도전서 1Corinthian15:17-20)

Happy Easter! 옆에 계신 분들과 기쁨으로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부활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Egg Hunt나 Easter Bunny일 것 같습니다. 어찌다가 성탄절은 산타와, 부활절은 토끼와 사진 찍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가장 성스러운 날이 가장 상업화된 날로 변질된 것입니다.

Happy Easter! Let's share Joyous Easter greetings with one another. What comes to your mind first at Easter? For children, it would probably be egg hunt or picture taking with Easter Bunny. Somehow Christmas became Santa and Easter became picture taking with bunny. Regrettably, the most holy days have been extremely commercialized nowadays.

하지만 동유럽에서는 아직도 좀더 부활절의 의미가 담긴 Easter Basket을 만듭니다. 부활절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달콤한 캔디나 초콜릿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보살피 주신 귀한 은총을 기억하며 빵을 넣습니다. 부활절 빵 Pascha는 유월절과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Horseradish는 애굽에서의 고통, 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의미로 계란도 넣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하십니다.

However, Eastern Europeans make more meaningful Easter baskets to this day.

What are in the baskets? No sweet candies or chocolates are in it. They put bread remembering the grace of god who had taken care of them in the wilderness of life. The Easter bread, Pascha, is put in the basket in remembrance of God who is the bread of Passover and the bread of life. They also put horseradish symbolizing their suffering in Egypt and also suffering of Jesus Christ. They also put eggs, remembering God's Resurrection and their own resolve for a renewed life. Let's do a proper Easter greeting again.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삼일만에, 정확하게는 약 36시간 정도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성경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지요. 여기저기 의문투성이입니다. 시작부터 알쏭달쏭 합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됐다고 합니다. 구약은 케케묵은 것,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불과 2천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사내 아이를 임신했다, 신약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무려 3일이나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

Christ is risen on Easter morning, defeating the death! My beloved congregation, do you truly believe that He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in three days, in about 36 hours after being completely dead? It would be OK if you say you really cannot believe it. The bible is not an easy book to believe. It presents many questions and starts with ambiguities from the beginning. It declares that the world was created with God's words and not directly with his hands. The Old Testament is much antiquated. How about the New Testament? It happened merely two thousand years ago. A woman who did not know a man was with a child.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New Testament. Jesus, that very child,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was raised in three days.

교회에 오면 자주 듣는 충고가 있어요. '무조건 먼저 믿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차차 이해된다.' 아니요, 무조건 믿지 마세요. 왜 오늘 'Happy Easter'라고 인사합니까?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수많은 증인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좀 수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나는 믿는데, 왜 당신은 믿지 못합니까?'** 너무 성급하게 내 믿음을 강요하지도 맙시다.

You hear this advice quite often in church. 'Believe unconditionally. You will understand gradually when you fervently devote yourself in religious life.' No, you should not believe unconditionally. Why do we say 'Happy Easter' today? Why do we rejoice in Christ's Resurrection? There's nothing left in Christianity without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Crucifixion is an historic event without any doubt. There are lots of witnesses and written documents. How about Resurrection? I am about to tell you a rather strange message. I tell you, do not believe the Resurrection unconditionally or with blind faith. Let's not force my belief on someone else saying. 'Why can't you believe when I can believe?'

오늘 말씀은 복음서 기록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활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부활의 증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변증적으로**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 출발점부터 전혀 다릅니다. 바울의 물음은 정말 기발한, 어찌 보면 발칙한 역발상입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Today's scripture presents the Resurrection in a different angle from those in the gospel. In the gospel, we hear vividly the voices of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based on the real event. However, Paul witnesses the Resurrection dialectically. It has a very different beginning. Paul's question is unique and in some way outrageous.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녀임신'과 '부활'은 기정사실로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으라고 설득 당해 본 적 있으세요? 솔직히 부활사건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 의문들이 한 번에, 한순간에 풀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년에 두 번 세례예식을 갖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탄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 (부활절) 입니다.

Have you ever been persuaded that you just have to believe virgin birth and the Resurrection as real? Truthfully, the Resurrection is difficult to understand by common sense or by reason.

It is OK to feel that way. But I have one clear conviction, when you meet the Christ face to face, all doubts and questions will be cleared. We perform baptism twice a year at our church, at Christmas and at Easter. The Christianity we believe in is that the Christ came to us (Christmas), He was crucified, and raised in three days defeating death (Easter).

(Easter)

기독교 신앙은 말구유와 골고다 언덕, 그리고 빈 무덤에 집중돼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쏙 빠져버린 긍정의 힘, 세상살이 처세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결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입니다. 우리 이성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The Christian religion focuses on the manger, the Golgotha and the empty tomb.

The church is not a place where the Christ is absent and just teaches power of positive thinking and how to succeed in life. Please invite the God, the Christ, the Holy spirit, as center of your worship. Do not go forward before praying and scripture reading. It is a precious blessing from God to believe the Resurrection of Jesus. Our reasons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law of nature.

그런데 우리가 가끔 깜박깜박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자연법칙을 만드신 분이요, 바로 그 자연법칙을 초월해 계신 분이요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뭄도 또 단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를 뒤로 물러나게도 해

주십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지극히 마땅한 자연법칙을 파괴하십니다.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도 생깁니다.

However, we sometimes forget that God is the creator of the law of nature that we believe. God created everything around us, and he is not limited in any ways by his creation. God answered to Eljiah's prayer for famine and rain. God also answered Joshua's prayer for sun standing still. This serves one purpose, to show that God is above these naturally occurring rules. Sometimes in our lives, things may happen that makes us question the existence of God.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12, 우리말성경)

But if it is preached tha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how can some of you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만약 주님이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변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물음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매 주일 강단에서 헛소리하는 거구나.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도, 목회도 다 헛것이구나.' 바울은 부활의 근거를 세가지로 제시합니다.

If Jesus was not raised from the dead, and if there is no resurrection, Paul's message would have gone like this. "If Jesus was not raised from the dead, then I'm just spitting out empty words from my pulpit. If there is no resurrection, living as a Christian and Christian ministry is all of a waste." Paul's evidence of resurrec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things:

첫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공허한 외침이 됩니다. (v.17a)

First, if there was no resurrection, our faith is futile.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v.14)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소중한 시간 낭비하며, 헛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Vance Havner 목사가 성지순례를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No, thanks." 짧은 댓구 뒤에 이어지는 이 분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I don't want to go where Jesus was; I just want to stay where He is!"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If there was no

resurrection, we are wasting our time right now. Our service will not mean anything. There was a pastor named Vance Havner, who was offered to go to a pilgrimage to the Holy Land. He replied "No, thanks." ... "I don't want to go where Jesus was; I just want to stay where he is!"

부활절 아침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게가 2톤이 넘는 육중한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16명이나 되는 로마병정들이 물샐틈없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의로 꿩꿩 동여맨 주님의 시신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상세하게 이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vv.5-6)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동시에 오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In the morning of the Resurrection, women who loved Jesus went to the tomb of Jesus. The entrance to his tomb, which had been blocked by a stone weighing over 2 tons, was wide open. It had been guarded by 16 Roman soldiers. What is more remarkable is that the body of Jesus, bound tightly by burial clothes, was missing. After his resurrection, Jesus showed himself to many. Paul specifically outlines these witnesses in verse five through six. Jesus showed himself to Peter, twelve disciples, and to the crowd of 500.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바울의 이 증언이 거짓이라면, 당장 돌 맞아 죽습니다.

2천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사기행각도 중국에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내부단속을 잘해도,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다면, 2천년 동안 기독교가 이토록 생명력 있게, 영향력 있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안에 어떠한 생명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of KUMC, if Paul had lied, then he would have been stoned by the witnesses. It was because the witnesses were people who were living in the same time period as Jesus's resurrection, not us living in present circumstances 2000 years later. If it was a cover up or if it was a lie,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keep everyone on the same story for the long haul. If the story of resurrection were not truth, then the fundamentals of Christianity would have been broken down long time ago. Christianity would not have continued with its vibrant life and influencing power for two thousand years. Without any life within, it would have broken down from internal dysfunctions, rather than outside factors.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ur faith is in vain.

둘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17b)

Second, if there was no resurrection, we would still be in our sins.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25)

수난과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꽃은 은은하지만 참 강력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요즘 저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일상에서 부활을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은 단지 2천년 전에 발생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Romans 4:25)
If there is no resurrection, we would still be in our sins, because that ultimately meant that Jesus was not able to overcome death and sin. Furthermore, if there is no resurrection, there would not be life. Lily, the flower that represents resurrection, carries a strong scent. Dear brothers and sisters, please carry a strong scent of resurrection. In our church recently, we continue to experience “mini resurrection.” God gives us the faith of resurrection, helps us to pray together and experience resurrection in our lives. The story of resurrection is not something that happened 2,000 years ago. I thank God and praise his glory for the resurrection.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 안에, 새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때문에 죄 없는 유월절 어린양이 못박히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I hope you resid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ho still works in us today and the new life He is giving. Because of our sin, the Passover lamb was nailed on the cross, and He was resurrected to make us righteous who are ungodly.

셋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v.19)

Third,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hope in Christ, we are of all people most to be pitied.’ (v19)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If hope we have in Jesus Christ ends in this life, we are the most pitiful person in the world.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피곤한 삶이지요. 두 마음이

늘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 섬길까, 세상을 쫓을까, 늘 팽팽한 긴장 가운데 한시도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되겠고, 한편 제 커리어 쌓아서, 이름 석자도 날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나누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 좋은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롤 모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The most pitiful person in the world is a church goer who has no hope. It is a wasting life. Two minds always fight in our hearts: 'Serve God or the world.' These minds always fight without interruption. This is what happened to me. I wanted to please God; and at the same time, I like to build up my career. God is jealous. He doesn't want us to share our love toward God with anything else. We could pretend to love God and have good faith. We could be a respected role model in church. However, God sees the center of us. God who is perfect asks a complete, thorough obedience.

하루는 우찌무라 간조 Uchimura Kanzo 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은 정말로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은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만 성경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우찌무라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빼 버린다면, 성경에 꼭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과 뒤 표지 뿐이지."

One day one college student asked a serious question to Uchimura Kanzo, "Teacher, I can't believe the miracles quoted in the Bible at all. The story of Jesus' walking on water or His resurrection, etc. I can't really understand those miracles by reason. Can I just study the Bible without such miracles?" He answered, "If you omit those miracles incredible to believe with your rationality, then only two things would remain. They are the front and back covers of the Bible."

만약 주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며 순교한 초대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을 모른다 저주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결국 순교의 피로 이 세상 삶을 마감했습니다. 마가는 길거리에서 질질 끌려가며 땅바닥을 순교의 피로 적십니다. 시몬, 안드레, 빌립도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참수형 당합니다. 의심쟁이 도마도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뜨거운 기름 속에 처박혔다가 결국 목 베임을 당합니다.

If He does not live again, or no resurrection exists, there should be no single believer in the First Church who was martyred passionately confessing his/her love toward Him. Peter who denied Him

was martyred after being moved by the love of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Mark was martyred by being dragged to death. His blood drenched the ground. Simon, Andre and Philip were crucified like Jesus Christ. Jacob was beheaded. The distrustful Thomas was martyred. Paul was dumped into a boiling oil pot and was beheaded later on.

언제까지 예수를 알기는 알아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삶,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답답한 삶, 사시렵니까? 지금 이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도,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졌던 제자도 아닙니다.

How much longer do you want to live a pitiful life of not believing Jesus Christ even though you know Him? How much longer will you live a stifling life of not believ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even though you believe Him? Right at this moment,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is here by our side. The most powerful evidence of resurrection is neither the woman who found an empty tomb nor the disciple who touched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감동하시는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우리가 바로 **'부활의 산 증인'** 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You and I are the very witness of the resurrection. We are **the living witness of the resurrection** who are led by the Holy Spirit occupying our hearts and moving us to live a life as God's people. I hope you would have such precious confession in your heart, 'Lord, You resurrected to redeem us by defeating the realm of the dead. I wish to resurrect with You, Lord. **Lord, I am the resurrection.'**